

지는 구나 2004 뜨는 구나 2005 새해엔 꼭...

해돋이 명소에서 함께 축제를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제 2005'에서는 청사초롱 전통 무용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사진은 일출에 맞춰 염원 올리는 선녀들(위)과 호미곶 축제의 성화점화.

2005년 해돋이는 축제와 함께 맞이하자. 2004년을 마무리하고 2005년을 맞이하는 해돋이 해돋이 축제가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일제히 열린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제 2005는 경북 포항 인근 호미곶에서 열린다. 이맘 때 최고의 먹거리인 과메기 축제도 같이 하고 있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성에서는 통일기원 범종타종식으로 2005 고성 해맞이 축제의 해돋이 향연이 벌어진다. 실황진이 참여하는 소원성취기도 행사,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군악대 공연 등도 마련된다.

양양 낙산사에서는 소망기원 연등놀이, 범종 타종식, 해맞이 대법회와 양양 해맞이 축제 2005의 일환으로 성대하게 열린다. 낙산해수욕장에서는 동해신묘제제 봉행과 소망기원 풍선 및 연날리기, 모닥불 밝히기, 송구영신



2005년에는 일출을 보며 새해 새다짐을 해보면 어떨까. 사진은 경주 문무대왕릉 해맞이 대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장엄한 일출. 사진제공=경주시청

기원 멀티미디어 불꽃쇼, 새해소망 떡국 나누기, 선박퍼레이드가 열리고,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등산객을 위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국태민안 기원 독경과 바라춤으로 막을 올리는 2005년 경주 문무대왕릉 해맞이 대축제는 만파식적 등 국악 공연과 풍류쇼, 해룡 모형 이벤트, 관광객 노래자랑,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해상불꽃놀이, 소원성취 기원제, 대북 타고식, 연날리기, 가훈 써주기, 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일출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 일출제는 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에서 12월 31~1월 1일에 개최된다.

일출을 동해에서도 만끽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자. 서해안에서도 다양한 해돋이 축제가 준비중이다.

충남 당진의 왜목마을로 널리 알려진 왜목해뜨고 지는 마을은 청소년 댄스, 관광객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 연날리기, 짚풀공예 등 민속놀이 재연으로 해돋이 축제를 준비했다. 태안군은 안면도 황도항,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근흥면 채석포항, 근흥면 안흥항, 근흥면 원안해수욕장, 근흥면 안흥외항, 남면 마검포항 등 7곳에서, 서천군은 마량포구에서 해돋이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철도청은 12월 31일 무박2일로 신년해돋이열차를 운영한다. △정동진 해돋이 △해금강 외도 해돋이 △한려수도 삼천포 선상일출 △홍도 선상일출 △경주 갑포 문무대왕수중릉 해돋이 △해운대해돋이 △태백산등산 해돋이 등 7종의 상품을 마련했다. 요금은 공사출범 기 1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축제가 열리는 곳

축제명	내 용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제 2005	과메기 축제, 난타 공연, 청사초롱 전통무용, 불꽃놀이, 외국인 장기자랑, 영호남 신랑신부 결혼식, 떡국만들기 체험행사
2005 고성 해맞이 축제	실황진이 참여하는 소원성취기도 행사, 통일기원 범종타종식,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군악대 공연
양양 해맞이 축제 2005	낙산해수욕장에서는 동해신묘제제 봉행과 소망기원 풍선 및 연날리기, 모닥불 밝히기, 송구영신 기원 멀티미디어 불꽃쇼, 새해소망 떡국 나누기, 선박퍼레이드를, 낙산사에서는 소망기원 연등놀이, 범종 타종식, 해맞이 대법회,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등산객을 위한 해맞이 행사
강릉 '2005년 새해맞이! 새출발! 해돋이 축제'	시청앞 전야제, 경포호수호반일몰놀이, 콘서트 불꽃놀이, 진도매기(순대) 소원놀이, 바다안기 수영대회, 연예인 초청 콘서트
정동진 해맞이	모래시계공원에서 1월 0시 모래시계 회전제, 신년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진도매기 소원놀이, 연예인 초청 콘서트
성산 일출제	제주 성산 일출봉 일원에서 12월 30~1월 1일 새해맞이 일출제, 올해로 11회째.
속초시 해맞이 축제	'올유년 새해 아침 속초시에서 힘찬 새출발' 담미 관광객 대상 무료 가훈 써주기, 한해 운세풀이 행사, 대북공연, 전통무용, 공감음악회, 어선 선상 퍼레이드,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 희망춧불나무 만들기, 설악해맞이공원 촛불기도와 해오름 합성행사, 떡국 포기 맛김치 순두부 등 무료시음, 망상과 추암에서 길놀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송구영신 기원 33발의 폭죽, 해상 선박 퍼레이드, 모닥불 추억만들기, 촛불페스티벌, 새해 소망기원 불꽃놀이, 소망풍선 날리기, 연하장 쓰기, 무료 떡국 나눠먹기, 두타산 시산제와 대화함 한마당 잔치
희망 2005년 동해 해맞이 축제	1월 오전6시부터 해맞이 콘서트와 불꽃놀이, 사물놀이, 합창단 공연, 해맞이 징치기, 신년축하메시지, 소망기원 풍선날리기, 새해건강기원 경기 대회, 라이브콘서트
삼척 '새해 새희망! 힘찬 새출발'	국태민안 기원 독경, 바라춤, 만파식적 등 국악공연, 풍류쇼, 해룡 모형 이벤트, 관광객 노래자랑,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해상불꽃놀이, 소원성취 기원제, 대북 타고식, 연날리기, 가훈 써주기, 특산물 전시판매장
2005년 경주 문무대왕릉 해맞이 대축제	국태민안 기원 독경, 바라춤, 만파식적 등 국악공연, 풍류쇼, 해룡 모형 이벤트, 관광객 노래자랑,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해상불꽃놀이, 소원성취 기원제, 대북 타고식, 연날리기, 가훈 써주기, 특산물 전시판매장
여수 향일암 일출제	12월 31~1월 1일, 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

게시판

공부합시다

부석사 영어학교 서산 부석사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1월 4~13일 부석사 영어학교를 개최한다. (041)662-3824

겨울방학특강 인천 계양도서관이 12월 28~30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논술, 키포 등 7개 강좌를 무료로 개최한다. 강좌별 20~30명씩 선착순 모집할 계획. 교육은 내년 1월 10일~2월 4일이다. (032)555-6427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월 24~28일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이해 △자원봉사 활동, 장애체험 △자원봉사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및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051)868-0750

함께 해요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모집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가 전통차문화를 이끄는 연구생을 모집한다. 1월 15일까지. (02)504-6162

친구야 놀자 캠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친구야 놀자 캠프'를 1월 24~26일 개최한다. 참가비는 8만원. www.wangta.com, (02)795-8000(내선 320, 321)

초등학생 겨울환경캠프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환경캠프를 개최한다. 1월 17일부터 2박 3일간 남해갯벌생태학교에서 열린다. (051)465-0221

재즈댄스 등 수강생 모집 인천 만수종합복지관이 12월 31일까지 유아·초·중생을 대상으로 미술, 재즈댄스, 레고다터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10~15명씩 선착순 모집. 교육은 내년 1월 3~31일이다. 수강료 3만~4만원. (032)463-8161



100인의 작은 기념비전(사진) 100인 조각가의 작은 기념비전이 1월 14일까지 선화랑에서 개최된다. 국내 조각계의 다층적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색있는 전시. 최근까지 작품활동이 왕성한 대표작가들이 총망라됐다. (02)734-0458

청소년 비전 캠프 성남 서원청소년수련관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21C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 비전 캠프를 1월 20~22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내 인의 진정화 삶을 찾아서, 내 삶의 로드맵 설계, 셀프 리더를 넘어 슈퍼 리더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31) 781-6183

겨울 스포츠 학교 해양소년단 통영고성거제연맹은 1월 19~21일 지산 리조트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겨울 스포츠 학교를 연다. (055)646-8082

즐겁게 떠나요

월정사 눈꽃여행 옛돌 담사여행은 1월 8일 오전 7시 30분 오대산 월정사 눈꽃터널 기행을 떠난다. 오대산 월정사 눈꽃터널-상원사-적멸보궁-정선-아우라지-포마열차(정선역-증산역) 등을 둘러볼 이번 기행의 회비는 일반 43,000원, 정회원(중·고생) 40,000원, 어린이 37,000원 등이다. (02)953-1313

20면 상식 퍼즐 정답

송	년	호	전
구	우	공	이
영		중	어
신	안		귀
	중	사	감
	근	검	결
		약	소
		수	시
			무
			식

전시

서양미술 400년, 푸생에서 마티스까지

4월 3일까지 한가람미술관

서양미술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전시 '서양미술 400년 푸생에서 마티스까지'가 12월 17일 시작돼 4월 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근대회화의 시조 푸생에서부터 현대미술의 거장 마티스까지, 17~20세기 서양미술의 흐름을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17세기 바로크와 고전주의, 18세기 로코코, 19세기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20세기 야수파, 큐비즘 등 서양 미술 400년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전시에는 다비드, 앙그르, 들라크루아, 모네, 르누아르, 고갱, 마티스, 뮌히, 피카소, 들로네 등 88명 서양 화가들의 원화 119점이 출품

된다. 작품들은 프랑스의 랭스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에서 빌려온 진품들.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되는 작품 가운데 오랫동안 프랑스 랭스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고갱의 미공개 판화집은 이번 전시회에 특별히 초대돼 한국 일반 대중에게 전격 공개된다. 앞서 한 장 크기보다 작게 그려진 르누아르 유화 '대본낭독'은 여인의 코발트 빛 옷과 장밋빛 헬색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도난 위험 때문에 해외에서 전시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 특수 액자를 제작해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www.arthistory400.com, (02)2113-3477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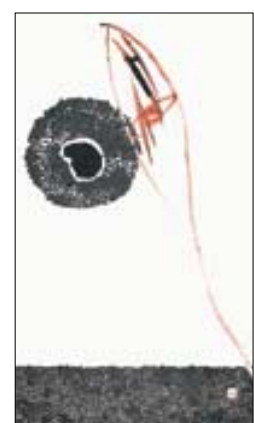


프랑스혁명의 세 거두 가운데 하나였던 마리의 앞실장면을 그린 '마리의 죽음'. 1793년 다비드 작.

'옴'과 '한일자'가 만났을 때

선진 스님과 서예가 노상동 선생 만남展

11년동안 움자만을 일관되게 써온 진언행자 선진 스님과 30년간 한일자만을 고집하며 수행해 온 한일자 노상동 선생의 만남 전 '옴 그리고 한일자' 전이 대구에서 열린다.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2동 불교전문서점 '묵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선진 스님이 붓을 들어 옴을 찍고, 노상동 선생이 한 일자로 장엄한 작품 31점이 선보인다. 옴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언어이자 깨달음의 언어, 허공이라고 선진 스님은 말한다. 또 반야심경 파자로 일자를 표현한 노상동의 반야일자는 무상무아 연기법적 법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선진 스님은 "관음의 가호지묘력과 신심과 원력으로 옴과 한일자 만다라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진 스님과 노상동 씨가 공동작업한 '옴과 한일자 26'.

배지선 기자

공연

체호프의 '세 자매' 무대에

1월 2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

올해는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1860~1904)의 사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극작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고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체호프.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 초연 이래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중요 공연 작품으로 꼽히고 있을 만큼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작품 '세 자매'가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막을 올린다. '세 자매'는 극단 애플시어터(대표 전훈가

2004년 한 해 동안 아심만만하게 내놓았던 '체호프의 4대 장막전' 가운데 4월 동국대 예술극장의 '빛꽃동산', 7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의 '바나 아저씨', 10월 정동극장의 '갈매기'에 이어지는 네 번째 작품이다. 19세기 말의 러시아, 지방의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세 자매와 주둔군 장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러시아 국립 셰프킨 연극대에서 공부한 러시아 유학파 1세대 전문 씨가 연출을 맡아 원작을 직접 한국말로 옮기고 배우들과 연습을 통해 대사를 다듬었다. 조민기, 정원중, 이호성, 류태호, 김정남 등



19세기 말 러시아 소도시의 한 가정을 그린 연극 '세 자매'의 출연진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민기, 정원중, 류태호, 이호성, 김정남, 유지연 씨.

장광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1월 2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 (02)741-3934

강지연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연꽃묵어조각 목탁

빛나무로 만든 수공예 연꽃묵어 조각 목탁이 나왔다. 오동나무상자 포장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목탁의 사이즈는 3.5치(20만원), 4치(26만원), 4.5치(34만원), 5치(40만원), 5.5치(50만원) 등이다. 목탁 양면의 조각이 각각 다르게 조각되어 수공예목탁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02)732-1520